



'동지마을 청소년의 집' 아이들 음악 나들이



'동지마을 청소년의 집' 아이들이 5월10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안내로 최근 개원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관례를 둘러보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34명 초청
공연 음악가들 종교 제각각
수익금 전액 소년소녀가장 전달

현성 (11)이는 인천 제부도 '동지마을 청소년 집' 원장 자월 스님에게 골부터 됐다. 첫 음악회 나들이에 나선 현성 이에게는 스님의 말씀이 잔 소리처럼 들린 모양이다. 5월 10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입구는 벌써 아이들이 불린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조계종 총무원장)가 마련한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자선음악회에 '동지마을 청소년집' 아이들

34명이 초대된 것. 간만에 나선 서울 나들이에다 말로만 들던 음악회 구경까지, 잔뜩 신들이 나왔다. 게다가 음악회 관람은 이번이 처음. 이것저것 물어보는 틈에 소극장 로비가 시끌시끌하다. "자, 천천히 입장하세요." 매표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이들이 극장으로 달려 들어간다. 자리에 앉자마자 연신 '종

알종알~' 극장이 금세 높아져가 된다. 하지만 첼로 연주에 장내는 침묵이 흐른다. 오늘 자선음악회는 국·내외 정상급 음악가 20여 명이 음악회를 준비했다. 종교는 제각각 다르지만, 좋은 일을 한 번 해보자고 의기투합을 했다. 경희대 음악대학장 황선 교수부터 국민대 우지연, 이화여대 김신자, 한양대 김형규 교수 등이 김미로운 '음악 잔치상'을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 차렸다. 또 조계종 총무원과 생명나눔실천본부도 이번 음악회에 큰 힘을 보탤고, 자선음악회 수익금 전액은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된다. 자선음악회를 기획한 황선 교수는 "지난해 생명나눔실천본부 전남지역회에서 받아본 소식지에 실린 소년가장을 보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었다"며 "이번 음악회에 소년소녀가장들이 함께 해준 것만으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드디어 공연 시작. 아이들의 반응이 시큰둥하

다. 아예 반응이 없다. 생소한 음악은 그간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신동지 않은 눈치다. 그러나 잠시 후, '보리밭'과 '그리운 금강산' 노래가 흘러나오자 이제는 판판이다. 아는 노래가 끝나면 환호성과 박수갈채를 보낸다. 이것도 모자라 '앙골-앙골' 하며 소리를 지른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시간 쯤. 공연이 마무리되자, 아이들의 얼굴에 아쉬운 표정이 역력하다. 좀처럼 자리를 뜰 생각도 하지 않는다. 옆에 앉은 민수(12)가 지도교사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는다. "선생님, 내내에도 음악회 또 하겠죠."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아이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은 경희대성악과이 합창단의 공연.

사진=고영배 기자

'자비의 등' 이웃위해 불 밝혔다



우리는선우 5월8일 장충단 공원에서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장충단공원에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이 밝혀졌다. 우리는 선우(이사장 성태용, 건국대교수는 5월 8일 저녁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이웃을 위한 자비의 5천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삼귀의 반야심경을 시작으로 열린

우리는선우 장충단공원에 5천등 점등 대상자에 기원문 나눔카드 발송 서비스

이날 점등식에서 성태용 이사장은 "12년전 나와 가족만을 위한 이기심에서 벗어나 남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웃을 위한 등달기 행사를 시작했다"며 "각 사찰에서도 자비의 등달기 행사가 많이 행해지고 있지만 더욱 늘어나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살리는 독특한

살리는 등문화로 정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또 "우리 마음속에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달기 행사는

1만원의 보시금으로 어려운 이웃과 사랑받는 사람들을 위한 건강 채유 천도 감사 사랑 행복 평화 성공 합격등을 장충단 공원에 밝힐 수 있다. 우리는 선우는 신성한 사람이름으로 대상자에게 기원문이 담긴 나눔카드도 보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02) 2278-8672, buddhanews.com

김원우기자

위덕대 25일 사회봉사단 결성

진각종 총림 경주 위덕대(총장 한재숙)가 '자리이타'라는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5월 25일 위덕사회봉사단(단장 전인우·교학처장)을 결성한다.

위덕사회봉사단은 교직원과 학생 5백여명으로 구성돼, 환경정화, 규찰 등 캠퍼스내는 물론 농어촌 및 지역 사회 봉사활동, 복지·공공시설 지원 활동 등을 펼친다. 특히 이들은 교통 정리, 행사 지원, 불우이웃 후원, 근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도움 역할 을 하게 된다. 위덕대는 우수봉사단원과 우수 참가 단체 등에게 각종 특전을 부여해 봉사 단 활동을 적극 후원한다.

최우수 봉사단원에게는 연 2회 장학금이 지급되며, 최우수단체에는 포상금이 주어진다. 수료증명서 발급과 취업 추천서 우선 기회 제공, 총장 표창 수여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또 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해외봉사단 선발시 모든

단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우수 단원에게는 경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위덕대는 사회봉사 30시간, 기본교육 2시간을 이수한 학생에게 정규학점 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인우 위덕사회봉사단장은 "봉사단 활동은 지역사회에 기여 하는 대학으로 거듭나는데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54)760-1024 박병영기자

5백여명 규모...

농어촌, 복지시설 등 지원

우수단원 장학금 지급

학점인정 검토 중

현대불교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찬불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

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인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현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현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나눔의 저금통 및 스티커 신청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학생회(교장 박미나)
저금통-35개 스티커-50장

경북 경산시 외촌면 신리법 법사(주지선덕 스님)
저금통-20개 스티커-30장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김광식
스티커-100장

경기도 용인시 죽전1동 홍영순
저금통-7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김중환
스티커-10장

서울 노원구 월계동 나상호
스티커-20장

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성지민
스티커-20장

성금 내신 분

김정홍 5,120원

나눠드립니다

우리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 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